



가족은 과연 힘일까? 짐일까?  
평생을 동생 바보로 살아온 풍상씨와  
사고뭉치 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볼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



유준상

이시영

오지호

전혜빈

이창엽



KBS2 TV 수목드라마

# 왜그래 풍상씨!

KBS Drama 매주(목) 오후 2시 10분, 밤 12시 20분

## KBS N magazine

VOL.34 JANUARY, 2019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인 박정미  
 발행일 2019. 1. 9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윤재, 손영주  
 제작·디자인 DNC www.thednc.co.kr



www.KBSN.co.kr



인스타그램에서 KBS N을 만나보세요!

<KBS N 매거진>에 대한 의견이나 정기구독 요청(무료)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 Cover Story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의 인생 2막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12



16



18

### 04

N focus  
KBS N 2019년 시무식

### 06

Special 1  
2019 방송 트렌드 전망

### 08

Special 2  
기상천외!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차트를 달리는 남자>  
남녀 사이 찐의 전쟁과 갑을 관계 <연애의 참견2>

### 12

Program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왜그래 풍상씨!>

### 15

Test  
2019년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내 마음속 결심지수는?

### 16

Issue  
국내 최대 어린이 놀이 체험전 <키즈월드>

### 18

Sports  
베테랑 캐스터들의 유쾌한 공간!  
유튜브 채널 '캐놈들'

### 20

Inside  
애니메이션,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

### 21

N news  
KBS N, 2018 종무식 진행

### 22

Notice  
2019년 특별 운세

KBS N 2019년 시무식

# 최고의 콘텐츠 전문기업을 목표로 더욱 가치를 드높이는 2019년!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KBS N은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급변하는 시장 변화 속에서 극대화, 활성화,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전문기업을 향해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 극대화, 활성화, 미래가치 창출!

지난 1월 2일, KBS N이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KBS미디어 센터 심석출에서 열린 시무식은 박정미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승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쾌한 웃음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작되었다. 먼저 새롭게 KBS N에 합류한 봉중근 야구 해설위원이 "해설위원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단단한 각오를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신년사에서 박정미 대표이사는 "2019년에 KBS N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전문 기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위기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를 극대화, 활성화, 미래가치 창출의 3가지 차별화된 접근으로 그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과제도 제안했다.

▲콘텐츠 도달률을 높여 수익 극대화 ▲외부 자본 투자, 부분합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W 채널 본격 활성화, 브랜드사업콘텐츠의 독자적인 사업 모델 개발, 문화사업콘텐츠의 IP 확보와 자체 브랜드 육성 ▲키즈 채널 경쟁력 향상과 영역 확장 및 스포츠 콘텐츠의 VR 사업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 2019 트렌드 키워드로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대응

박정미 대표이사는 "KBS N은 폭풍 같은 변혁의 시대에 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여 최고의 콘텐츠를 창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년사에 이어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전미영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9' 강연이 진행됐다. "2019년 황금돼지해의 트렌드는 'PIGGY DREAM'"이라며 운을 뚫은 전 교수는 2019년 한국을 이끌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했다. '콘셉팅을 연출하라', '세포마켓(Cell Market)', '뉴트로(New-tro)', '필(必)환경시대', '감정 대리인', '데이터 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 '카멜레온', '밀레니얼 가족(Millennial Family)', '나나랜드', '매너소비자'를 소개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임원진은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다양한 변화, 다양한 도전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2019년이지만, KBS N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더욱 정진하여 2019년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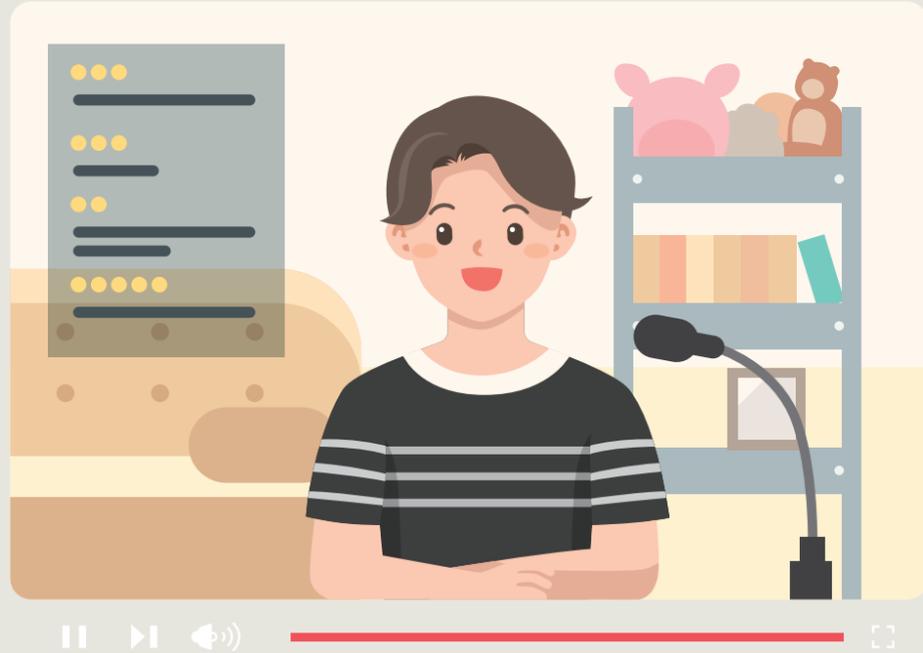
“2019년에는 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극대화, 활성화, 미래가치 창출의 3가지 차별화된 접근으로 콘텐츠 기업으로서 KBS N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전미영 교수의 강연



새 식구가 된 KBS N 봉중근 해설위원



## TV 콘텐츠와 1인 미디어의 공생을 꿈꾸다 2019 방송 트렌드 전망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반의 개인 방송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방송가도 트렌드를 쫓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TV 콘텐츠와 1인 미디어의 공생 관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글. 손예지 기자 (뷰어스 viewers)

### 1인 미디어 구독자가 된 TV 시청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8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네이버TV·카카오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33.6%)은 종이신문 열독률(17.7%)의 2배 가까이 앞질렀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연령층의 분포다. 20대가 이용률 64.3%를 기록한 데 이어 30대·40대·50대도 각각 48.0%·35.4%·24.7%의 이용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전 연령층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과거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10~20대 등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11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3,800만 명의 유튜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79억 분)이 20대(64억 분), 30대(46억 분), 40대(42억 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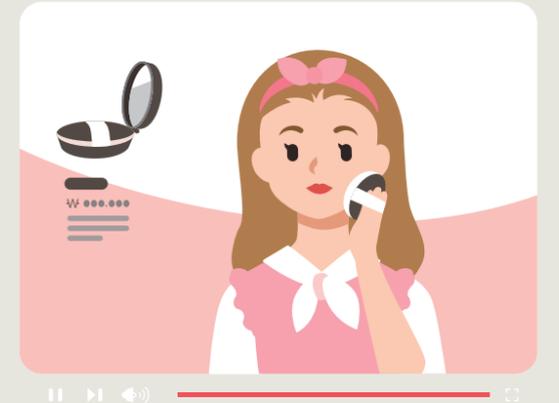
정보 전달은 물론 유희적인 측면까지 기존의 TV가 제공했던 일들을 1인 미디어가 그 이상으로 해내는 덕분이다. 실제로 요즘 TV 뉴스의 속보는 온라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면 TV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 가능한 환경도 1인 미디어만의 장점이다.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기까지 다소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1인 미디어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형식과 소재가 자유로운 1인 미디어 콘텐츠는 TV 프로그램보다 풍성한 재미를 선사한다. 사용자는 수많은 콘텐츠 중 각자의 취향과 흥미를 고려해 취사선택이 가능하며, 실시간 방송의 채팅이나 VOD 댓글 서비스로 제작자 겸 출연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니 대중은 TV 대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방송가 특명, '스타 크리에이터' 모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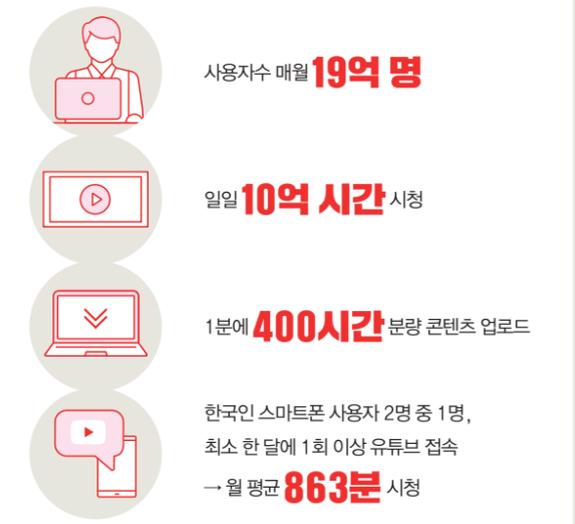
방송가에는 빼앗긴 시청자를 되찾아 오라는 특명이 내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주인공을 데려와야 했다. 바로 '스타 크리에이터'다. 현재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하 랜선라이프)'이 그 선두에 섰다. <랜선라이프>는 요즘 '핫'한 크리에이터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다. 지금까지 대도서관·윤명 부부와 뽀빠·썸님·소프·비글부부·고퇴경·엠브로·데이브·감스트·꼭TV·심방골주부·유아·김나름·홍사운드 등이 출연했다. TV 시청층과 1인 미디어 시청층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랜선라이프>는 2%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순항하고 있다. '스타 크리에이터'를 향한 방송사의 러브콜은 계속됐다. 지난해 MBC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인기 BJ 감스트를 디지털 해설위원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감스트는 MBC <라디오스타>와 <진짜 사나이 300>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초대받았다. 이 외에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나 먹방 BJ 입짧은 햇님은 각각 tvN <나의 영어사춘기 100시간>, <놀라운 토요일> 고정 멤버로 발탁됐다.

### TV 방송과 1인 미디어의 공생, 관건은?

하지만 단순히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것만으로는 1인 미디어의 기세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1인 미디어 트렌드를 프로그램 포맷 자체에 녹여야 한다. 그 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KBS Joy <양세형의 짤방공작소>, XtvN <커버 브라더스>, SBS <가로채널>, JTBC4 <어썸피드> 등이 대표적이다. <양세형의 짤방공작소>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내용이었다. <커버 브라더스>는 연예인들이 온라인 속 인기 영상을 직접 따라 하는 모습에 웃음 포인트를 뒀다. <가로채널>과 <어썸피드>는 연예인들이 직접 1인 미디어가 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역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의 전성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대 흐름상 TV와 1인 미디어와의 공생이 불가피한 지금. 방송가는 TV가 가진 대중성과 파급력을 바탕으로 시청자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1인 미디어의 장점을 살려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다.



### 숫자로 보는 유튜브



# 기상천외!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면?

전 세계 별별 사건을 차트로 소개하는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지난 연말에 방영된 〈차달남〉 112회는 세계 각국의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장식했다. 괴짜라고 불리지만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세계 별별 사람들을 만나보자.

## 1

### 뱀파이어 여친부터 악마가 되려 200번 성형한 남자까지

호주에 살고 있는 조지아나는 어릴 때부터 탈라세미아(유전성 빈혈)과 햇빛 피부염을 앓았다. 희귀병 때문에 항상 햇빛을 피해 다녔고, 부족한 철분을 보충을 위해 20년간 사람의 피를 마셨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빈혈증세가 악화되었고 감정기복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피를 공급받는 방법은 기절초풍할 만큼 놀라웠다. 남자친구의 몸에 상처를 내 피를 빨아먹는 것! 상처를 많이 낼 수 없는 노릇이기에 '1주일에 한 번'이라는 횟수도 타협했다. 두 MC는 "한국에 와서 선지로 철분을 보충하지 그러냐"며 "호주로 선지 해장국을 수출해 달라"고 말했다.

무섭고 황당한 사람은 또 있다. 영국의 40대 남성 디아블로는 악마가 되고 싶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번의 성형을 감행했다. 이마에는 두 개의 뿔을 삽입했고, 허를 두 갈래로 절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안구도 빨간색으로 문신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몸을 개조하는 예술일일 뿐, 좀 별나지만 이게 나"라며 "절대 악마 숭배자는 아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MC 조우종은 "뿔이 재미있냐. 혹시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KBS Joy 매주(토) 오후 2시 30분 방송



미스터리 사건부터 막장 사건까지!  
전 세계 별별 사건을 끝까지 파고 파는 차트쇼



## 2

### 목숨 내놓고 도로를 질주하는 세계 각국의 운전자들

세계 각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와 중국에서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질주하는 무개념 운전자들에 대한 제보가 세간을 놀라게 했다.

먼저,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시속 112km로 주행 중인 버스에서 핸들을 놓고 어깨춤을 추는 운전기사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흥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다. 영상 공개 후 그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은 물론 면허 취소 명령이 내려졌다고.

중국에서도 위험천만한 운전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하며 왼발로 핸들을 조작하는 기사부터 운전 중 손톱을 깎는 기사, 운전하며 국수를 먹는 남자까지 그 행태도 다양했다. 이에 MC 조우종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 3

###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괴짜 아티스트 '푸앵슈발'

프랑스의 행위예술가 '푸앵슈발'은 매년 괴짜 퍼포먼스를 선보여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의 포트폴리오에 최고 정점을 찍은 퍼포먼스가 있으니 바로 '바위 속에서 1주일 살기'. 특수 제작된 바위 속에 사람 모양의 홈을 내고, 그 안에서 1주일을 살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시공간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며 퍼포먼스 이유를 밝혔다. 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바위 속에 저장해둔 음식을 먹고, 작은 용기에 용변을 해결하며 한주를 보낸 푸앵슈발. 1주일 뒤 초체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우주인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햇목을 타고 여행하는 것 같았다"는 재밌는 소감을 남겼다.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는 푸앵슈발의 소감에 MC 이상민은 믿을 수 없다며 두 눈이 동그래지기도.

한 달 뒤에는 '인간 암탉'에 도전했다. 유리 상자 내부 온도를 37도로 맞추고 한국식 솜이불을 덮은 채 24시간 중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알을 품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3주 만에 병아리 1마리가 부화에 성공했다. 매년 기행에 가까운 행위예술을 선보이는 푸앵슈발이 또 어떤 도전을 이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 괴짜들은 결혼식도 남달라!



#### 6위 에펠탑과 결혼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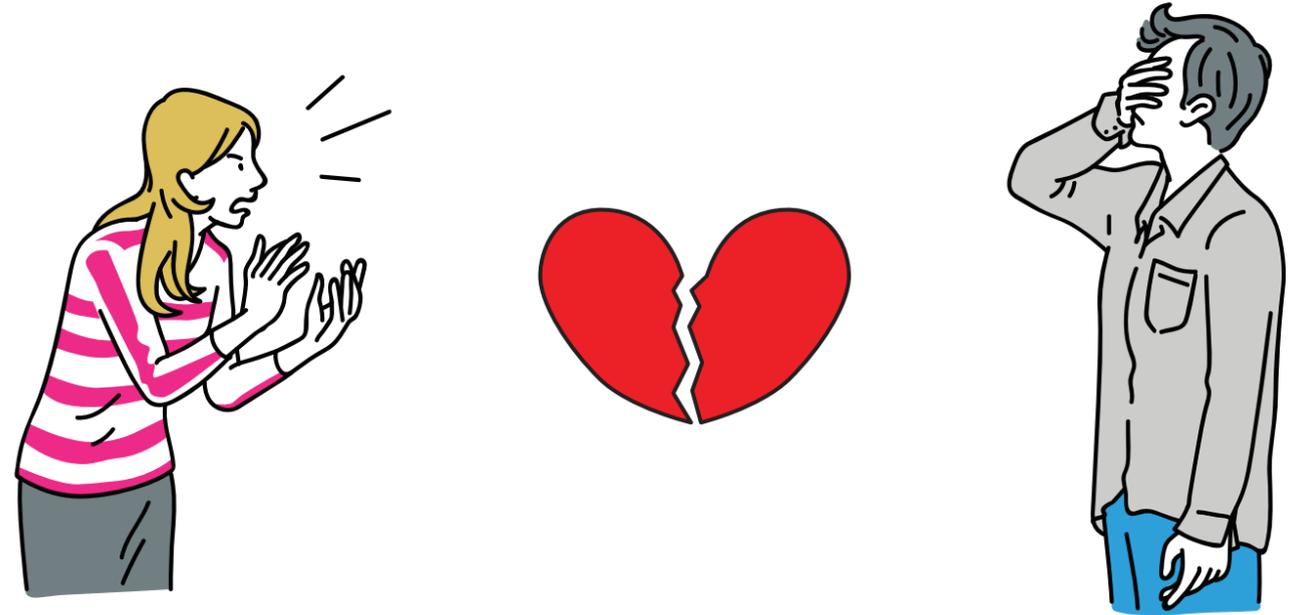
미국의 한 여성은 가족,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그 상대는 에펠탑. 이후 그녀는 '에리카 에펠'로 개명까지 했다. 사물 기호증 성향을 가진 그녀는 한때 F-15전투기에 반해 미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다고. 물론 어이없는 입학 이유에 방출되었지만 말이다.

#### 9위 지네의 왕♥전갈의 여왕

지네 1천 마리와 28일간 동거하여 기네스북에 오른 남자와 전갈 5천 마리와 33일간 동거하고, 전갈을 입에 넣고 2분 30초간 버텨 기네스북에 등재된 여자가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입에 지네를 물고, 신부는 웨딩드레스에 전갈을 붙이고 나왔다는 후문. 이에 MC 조우종은 "부부의 집이 궁금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다"며 손사래 쳤다.

## 남녀 사이 찐의 전쟁과 갑을 관계 〈연애의 참견2〉 행복해야 할 연애가 찐질하고 처절해진 까닭은?

시즌1에 이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Joy 〈연애의 참견2〉는 매회 참신한 소재와 리얼한 사연으로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방송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 '돈', '갑을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어 또 한 번 화제에 올랐다.



**남친**  
오빠, 혹시 데이트 통장에서 돈 뽑았어? 통장정리 하는데 23만 원이 빠져 있어서~

**남친**  
너 생일 선물로 줬던 가방 있잖아~ 그거 샀어

**남친**  
내 생일선물을 왜 데이트 통장으로 사?

**남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사비 쓰는 건 좀 낭비인 것 같아서~

OK

**말끝마다 돈돈돈! 손해는 1도 보기 싫은 각박한 우리**  
고민녀 커플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과소비를 줄여보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제안이 달갑지만은 않았지만 충동구매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결혼 비용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카드는 남자친구가 관리하고 매월 30만 원씩 입금하기로 한 두 사람. 데이트 통장을 만드니 계산대 앞에서 누가 계산할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하지만 데이트 통장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남자친구는 입금 약속일이 이틀만 지나도 고민녀에게 '입금 독촉'을 일삼았고, 데이트 통장에 목숨을 걸며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 했다. 심지어 차를 타고 데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유류비, 엔진오일 교체비와 같은 차량 유지비는 물론 고민녀의 선물까지도 공금으로 해결해 5MC를 기가 막히게 했다. 걱정은 "절약이 아닌 인색"이라고 말했고, 김숙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보길 잘했다. 안 만들어 봤으면 나중에 크게 일이 터졌을 것"이라며 참견러들의 큰 공감을 샀다.



### 갑을 관계에 놓인 우리 연애, 이대로 괜찮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10명 중 8명이 연인 사이에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며, 그 이유로 서로에 대한 호감도 차이를 1순위로 꼽았다. 〈연애의 참견2〉 19회에는 이처럼 연인 사이 갑을 관계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친구의 누나이자 첫사랑인 여친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잠수를 탔고, "이럴 거면 헤어지든가"라는 말을 일삼았다. 하지만 고민남은 그런 여친마저도 너무 좋아 그녀가 모진 말을 해도 매번 달래가며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하지만 연인으로서 사소한 대우도 받지 못했던 고민남은 결국 헤어짐을 요구했고, 여친은 언제나 그랬듯 "내가 이라는 게 이해 안 되면 헤어지든가"라며 응수했다. 결국 헤어짐을 고한 두 사람. 그런데 며칠 후, 여친으로부터 "너와 헤어지고 무서웠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었나 보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자발적'이었던 고민남이 을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발적 갑'이 되기 시작한 것. 여친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맞춰줄수록 화가 나 못되게 굴었고, 막상 집에 오면 후회하는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고민남에게 걱정은 "달라진 여친이 바보 같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기에 그때의 상처를 분노로 표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장훈은 "여신이었던 여친이 재회 후 자신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매력을 덜 느끼게 된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혜진 역시 "상처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민남을 다독이며 상처만 남은 연애를 끝내길 권했다.



⏮ ⏪ ⏩ ⏭

〈연애의 참견2〉  
KBS Joy 매주(화) 밤 10시 50분 방송



사진출처 :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UFO 프로덕션

잘 나가는 '동네 변호사'의 인생 2막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이하 <동네변호사 조들호2>)은 '연기의 신' 박신양, 고현정의 만남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낳았다. 시즌1보다 한층 커진 스케일로 깊은 울림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질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휘몰아치는 전개로 2019년 KBS 2TV 월화 안방극장의 포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

**박신양×고현정, 연기 신(神)들의 귀환!**  
 배우 박신양과 고현정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의 출연을 확정 지으면서 전무후무한 특급 만남이 성사되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지난 2016년 높은 시청률과 뜨거운 호평 속에 종영한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다음,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시즌, 소시민들을 대변하며 통쾌함과 위로를 안겼던 동네변호사 조들호 (박신양 분)가 이번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거액과 맞서 싸우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며 정의의 가치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출 고현정은 극 중 거액의 중심이 될 국일그룹 회장의 총애를 받는 실세로 그룹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실장 이자경 역을 맡았다. 타고난 우아함과 기품을 갖추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감정이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다.  
 시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최고의 배우 박신양, 고현정은 매 작품마다 범접할 수 없는 연기 내공과 에너지를 뽐내면서 그야말로 '대체불가 캐릭터'를 탄생시켜 왔던 바, 이번 작품에서 두 배우가 그려낼 독보적인 캐릭터와 극강 호흡은 벌써부터 기대감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는 절대 권력자들**  
 고현정과 함께 거액의 주축들로 활약할 '악의 축' 라인업도 탄탄하다. 변희봉은 극 중 거액의 중심이 될 국일그룹의 회장 국현일 역으로, '명망 높은 사업가'라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탐욕적이고 진인하며 냉혹한 다중인격자를 연기한다. 이자경을 총애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절대 권력자 국현일은 어떤 인물일지, 명품 배우 변희봉의 연기가 기대된다.  
 국회의원 백도현 역은 배우 손병호가 맡았다. 백도현은 그저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인물로, 손병호는 특유의 카리스마 연기로 썩은 정계 인물들의 전형을 보여주며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권력의 화신' 유창호 검사 역에는 김법래가 낙점됐다. 그는 국일그룹을 스폰서로 두고 있는 권력지향형 부장검사로 검찰 내부의 실세 중 실세. 한때는 청렴함을 떨쳤으나 돈과 권력으로 서서히 변질, 만민자상의 자리를 꿈꿀 정도로 야욕이 큰 인물이다. 유창호를 따르는 박우성 검사 역에는 정희태가 투입되어 김법래와 함께 사법계 비리의 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극을 흥미롭게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소시민을 대변했던 시즌1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거액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려낼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정의를 위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조들호의 인생 2막을 다 함께 지켜보자.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KBS Drama**  
 매주(화) 오후 2시 20분, 밤 12시 20분 방송

바람 잘날 없는  
풍상씨 5남매의 웃픈 이야기  
〈왜그래 풍상씨〉

KBS 2TV 〈소문난 칠공주〉, 〈수상한 삼형제〉, 〈왕가네 식구들〉 등의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특유의 필력으로 재미있게 펼쳐낸 바 있는 문영남 작가의 신작 〈왜그래 풍상씨〉가 2019년 KBS 2TV 수목드라마의 첫 주자로 나선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나 결코 평범하게 살지 못한 외로운 중년 '풍상씨'의 삶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  
〈왜그래 풍상씨〉  
KBS 2rama  
매주(목) 오후 2시 10분, 밤 12시 20분 방송

가족극 흥행 불패 신화를 이뤄 온 문영남 작가 신작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외롭고 불쌍한 중년 남자 풍상씨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준상이 연기하는 이풍상은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고 4남매를 거느리게 된 가장이다. 다사다난한 동생들로 인해 자기 인생이 없이 살던 중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풍상씨.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나 결코 평범하게 살지 못한 그의 이야기 속에 담긴 가족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질 예정이다.

4남매 진상-정상-화상-외상 역에는 각각 오지호, 전혜빈, 이시영, 이창엽이 캐스팅되었다. 이름에 딱 들어맞는 확실한 캐릭터 플레이가 예고된 가운데 5남매의 오색빛깔 찬란한 캐릭터가 가져다 줄 빅 재미를 기대해보아도 좋겠다.

이 밖에도 풍상의 아내 간분실 역의 신동미, 장인 간보구 역의 박일환, 풍상의 딸 이중이 역의 김지영은 개성 넘치는 대사들을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살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보희와 최대철은 각각 풍상의 '나쁜 엄마' 노양심으로, 진상의 오랜 친구이자 콤피인 전철복 역으로 변신해 예상치 못한 대사와 행동들로 웃음을 더한다.

때로는 공감을, 때로는 가슴 찡함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희로애락을 제대로 책임질 〈왜그래 풍상씨〉. 2019년에는 풍상씨 5남매의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2019년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내 마음속 결심지수는?

목표만 끝없이 새로고침 한다면 우리는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문을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포부로 새해를 시작하여 '역시 해낼 줄 알았어!'라는 뿌듯함으로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래 테스트를 통해 나의 결심지수를 알아보자.



<p><b>100°C</b></p> <p><b>끓어오르는 열정</b></p> <p>계획한 일을 모두 실행에 옮길 줄 아는 당신은 강한 실천력과 의지로 가득 차 있군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소신 있게 당신의 길을 걸어 나가길!</p>	<p><b>99°C</b></p> <p><b>1% 부족한 끈기</b></p> <p>강한 의지력을 가진 당신. 그러나 1% 부족한 끈기 때문에 종종 목표와 멀어지고 마네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당근과 채찍' 원리를 이용해보세요. 주변에 자신의 결심을 알려 '감시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b>40°C</b></p> <p><b>뜨뜻미지근한 열정의 온도</b></p> <p>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지만 일과 사람에 치이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 초심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네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한 게 무엇이었지?'라고 되새겨보세요. 한걸음 밖에서 삶을 바라보면 달성하고자 한 목표가 다시금 보일 거예요.</p>	<p><b>0°C</b></p> <p><b>차갑게 식은 당신! 작심삼일 경보</b></p> <p>무력감에 휩싸인 나머지 현실과 타협하는 일이 잦은 당신. 그런 당신에게 작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 보는 것을 조언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심삼일과 안녕~을 고해 보자고요!</p>
--	---	---	--



한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엄마아빠와 즐겁고 신나게 놀아요!

## 국내 최대 어린이 놀이 체험전 <키즈월드>

영하를 밀도는 한파와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활동이 망설여진다면 이곳을 주목하자! 오감을 제대로 만족시켜줄 국내 최대 실내 놀이공간 <키즈월드> 체험전말이다. 이번 겨울방학! 신나고 즐거운 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유쾌·상쾌·통쾌한 <키즈월드> 체험전으로 떠나보자.

마음껏 뛰어놀고! 재미있는 추억도 쌓고!

매년 여름·겨울시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키즈월드> 체험전이 올 겨울에도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체험전에는 <키즈월드 실내썰매>가 새롭게 오픈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유아기 어린이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즐길 수 있는 대형 놀이 체험관에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비롯하여 바이킹, 회전 UFO, 대형 회전그네 등의 다채로운 놀이시설과 함께 줘라인, 클라이밍, 수중 다람쥐통, 스카이 바이크 등의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또, 네온 오토바이, 오리배 등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어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다. 체험관 곳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다. 돛자리나 텐트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소풍이나 캠핑 느낌을 낼 수 있으며 먹거리 코너 및 카페, 휴게시설도 완비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작소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배가시켜준다. <키즈월드> 체험전은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 2월 24일까지 열린다.

### 레이싱 키즈월드 블루랄라

<레이싱 키즈월드 블루랄라>에서는 더욱 액티브한 체험이 가능하다. 마음에 드는 레이싱카를 타고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재미를 더한다. 올해는 공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스카이 바이크까지 추가되어 그야말로 육·해·공을 총망라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카이 바이크

공중에서 자전거를 탄다면 어떤 기분일까?  
친구와 하늘에서 아슬아슬 오나라부터~



장애물체험

한발 두발 내딛다 보면 집중력이 길러지는  
장애물체험! 꼭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해요.

### 수중 다람쥐통

물속에서 구르는 다람쥐통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 키즈월드 실내썰매

꼭 눈 위에서 썰매를 타야 할까? <키즈월드 실내썰매>에 가면 눈 없이도 신나게 썰매를 탈 수 있는 대형 튜브썰매 시설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대형 튜브썰매

따뜻한 실내에서 짜릿한 스릴을 느껴봐요.  
엄마아빠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신나요.



양 먹이주기

직접 먹이를 줘 보니 동물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요.



### 상상체험 키즈월드

초대형 규모의 실내 놀이터 <상상체험 키즈월드>에는 초대형 에어바운스를 비롯해 회전그네, 회전 목마, 바이킹, 회전 UFO 등의 놀이기구가 짜릿함을 선사하고 실내 썰매와 줘라인 등의 체험존은 재미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회전 UFO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UFO를 타고 싶다면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



실내 썰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타는 썰매는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



줘라인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무동력으로 공중을 가르며 내려가는  
줘라인! 짜릿한 쾌감과 성취감을 줘요.



'캐놈들'은 식탁에 계속  
오르는 반찬이지만  
막상 없으면 허전한 단무지다.  
질리지 않는 매력!  
이호근 아나운서

'캐놈들'은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섞으면 더 맛있는 음식  
부대찌개를 닮았다.  
완전 진국!  
김기웅 아나운서

  
**KBS N 김기웅×이호근 아나운서가 뭉쳤다**  
**베테랑 캐스터들의 유쾌한 공간! 유튜브 채널 '캐놈들'**

각각 여자프로농구, 프로배구에서 베테랑 캐스터로 통하는 KBS N 김기웅, 이호근 아나운서가 유튜브 채널 '캐놈들'을 운영하며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획부터 촬영, 편집의 A to Z까지 직접 다 도맡아 하는 이들. 대체 무엇이 두 캐스터를 유튜브의 세계로 이끈 것일까? 그 궁금증을 안고 두 사람을 만났다.



**좋아서 하는 1인 콘텐츠 '캐놈들'**

김기웅, 이호근 아나운서가 중계부스가 아닌 유튜브에 뒀다! 무슨 일이고 하니 두 사람이 함께 유튜브 채널 '캐놈들'을 운영하고 있단다. 두 캐스터 놀들(?)이 운영한다는 뜻의 '캐놈들'에서는 여자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5시즌 째 여자농구를 중계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웅터뷰(김기웅+인터뷰)'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시즌1에서는 경기에 잘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시즌2부터는 유명 선수들까지 대상을 넓혔어요. 모두 '캐놈들'에서 시청할 수 있답니다." 여자농구에 김기웅 아나운서의 '웅터뷰'가 있다면, 배구에는 이호근 아나운서의 '1분 인터뷰'가 있다. V리그의 매 경기 숨은 '핫 플레이어'를 찾아내 1분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튜브용 영상은 2~3분 정도다. 두 사람은 "기획-촬영-편집을 직접 하고, 중계가 끝난 뒤 짬을 내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감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든 작업을 우리가!**

내친김에 두 사람은 2018년 11월 초, 콜라보 콘텐츠를 기획했다. 이름하여 여자농구×여자배구 토크쇼 '여농배쇼'다. 1~2편은 터키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 선수 이야기로, 2편은 조희수만 5천 뷰를 훌쩍 넘었다(2019.1.4 기준). 김연경 선수 역시 '여농배쇼'를 재밌게 시청했다는 후문이다. "틈틈이 촬영을 하고, 편집 작업을 할 땐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자막 멘트, 효과음 등에 신경을 써요. 주로 주말이나 퇴근 후 저녁에 작업을 하고요." 말을 이어가던 이호근 아나운서가 현재 작업 중이라며 동영상 편집 어플을 켜다. 고심해서 넣은 자막 한 줄 한 줄, 초 단위로 설정된 영상효과들이 모여 3~4분짜리 하나의 영상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거기엔 두 사람의 여자농구, 여자배구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김기웅 아나운서는 "즐겁게 하는 일인 만큼 지치지 말고 계속해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여농배쇼"를 통해 각기 다른 두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하고, 우리 역시 '여농배쇼'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근 아나운서 역시 "오락실에서 여자농구 선수와 자유투 대결하기와 같이 선수들과 함께 하는 콘텐츠들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자농구, 여자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푹푹 뭉친 '캐놈들' 김기웅, 이호근 아나운서에게 딱 맞는 말 아닐까!

 **YouTube** 유튜브에서 '캐놈들'을 검색해보세요!



옆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유튜브 채널 '캐놈들'로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 애니메이션,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

지상파, 케이블 TV와 같은 방송 채널은 물론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에서 탄탄한 시청자 층을 확보한 바 있는 '애니메이션 런닝맨'이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로 재탄생되었다. 눈을 눴 수 없는 무대효과, 여기에 재기 발랄한 퍼포먼스와 따뜻한 교훈이 더해진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 선물이 되어 줄 것이다.



© SBS/LINE FRIENDS

### 다이내믹한 퍼포먼스 가득!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

KBS N이 주최하는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는 런닝맨 챔피언십에 참가한 여섯 명의 런닝맨들(리우, 미오, 쿠가, 롱기, 포포, 팔라)이 다양한 게임으로 서로 경쟁을 하던 중 거대한 음모를 만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SBS와 라인프렌즈가 공동제작한 인기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는 작품성은 물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하고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온 가족이 함께 보아도 손색없으며, 완성도 높은 음악 및 안무 효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환상적인 무대효과도 관람객들을 매료시킨다. 애니메이션 속 세상을 무대로 옮겨 놓은 듯한 원통형 가변 무대와 레일형 시스템으로 제한된 무대 위에 가변형 무대를 구현하여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한 무대로 기존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런닝맨'의 인기 에피소드인 '딱지의 제왕', '방울헌터', '초능력 배틀' 게임을 긴장감 넘치는 무대연출과 풍성한 음악 효과를 더해 볼거리가 다양한 뮤지컬로 재탄생 시켰다.

올 겨울방학, 여섯 명의 런닝맨들이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는 오는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어린이 뮤지컬 〈런닝맨: 마지막 승자〉

**일자** 2019년 1월 31일 ~ 3월 3일  
**장소** 서울 광진구 능동로 76(자양동 227-344) 나루아트센터  
**시간** 평일 11시, 14시 / 주말 및 공휴일 11시, 14시, 16시 30분  
 ※ 월요일 및 설 당일 공연 없음



## KBS N, 2018 종무식 진행

KBS N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 상암동 '봄날의 정원'에서 종무식을 끝으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항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선 종무식은 박정미 대표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유공상, 모범상 포상, 사장님 말씀,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정미 대표는 "2018년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노력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송년사를 전했다.

이어 전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즐기며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덕담과 격려를 주고 받으며 KBS N 종무식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2019년 띠별 운세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나에겐 어떤 일이?**



**쥐띠**

힘들어도 실망이나 환탄을 하지 마라. 작은 일일지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작은 일이 모여 안락과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힘든 일에 의연한 대처가 필요한 한 해이며 귀인이 도와주니 반드시 곱함을 있을 것이다.



**소띠**

전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뒤끝을 절대로 남기지 말고 원한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시비나 구설수를 조심하면 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하반기에는 막혔던 일이 얼음 녹듯 순조롭게 풀리니 때가 좋다.



**호랑이띠**

집안에 경사나 승진 등의 변동운이 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심할 것이니 인맥 관리를 잘하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며, 금전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토끼띠**

잡초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는 형상이니 주변이 복잡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자 노력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운수이다. 잦은 이동은 좋지 않으며 몸이 허약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용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한 해이다. 작은 시련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허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손해 볼 일이 오히려 이익이 되어서 돌아온다. 금전운은 좋으나 지출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뱀띠**

금전과 재물이 몰려오는 한 해다. 하지만 시비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마음을 낮추고 근신 자중해야 한다. 계획을 세워도 한 해가 다 가도록 결단을 못 내리니 수심이 많다.



**말띠**

전체적으로 좋은 운수이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이며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재수와 운수가 좋다고 자만하다가 큰코다치기 쉬우니 매사 조심해야 한다. 재물을 너무 탐하면 송사에 휘말리기 쉽다.



**양띠**

가뭄 끝에 비를 만나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주위의 인덕으로 득을 보게 되고 매사가 순조롭다. 희망하는 일이나 소원은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해운이다. 건강운만 조심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펼치기에도 길하다.



**원숭이띠**

갈 곳이 없고 앞길이 막혀 막막하나 냉정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이다. 지난 세월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과분한 욕심을 버리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살려 나가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닭띠**

덕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길하다. 올 한 해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엔 불리한 해이다. 덕을 베풀면서 때를 기다리면 재물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개띠**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라? 그동안의 변화로 금년에는 만사가 여의하고 운수가 대통한다. 그동안의 성실함으로 뜻밖의 성공을 거두기도 할 것이나 건강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돼지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니 봄을 기다려야 한다. 큰 바다로 나가는 관문에 들어섰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찾았으니 행운과 재물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다. 지나친 지출과 물과 불을 조심하도록 한다.



**뮤지컬에서 진정한 승자가 가려진다**

THE MUSICAL

**레니오**

**마지막 승자**



**2019. 1. 31 ~ 3. 3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주최 (주)KBS N | 주관 (주)MPLUS | 예매 인터파크(1544-1522) ©SBS/LINE FRIENDS